

3·15의거 제47주년 기념 메시지

3·15의거 47주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15의거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입니다. 자유·민주·정의의 3·15정신은 4·19혁명으로 뜨겁게 타올랐고,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으로 이어져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권과 권위주의 청산, 정경유착 해소, 선거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진전 위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발전시켜 가고 있고,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우며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같은 도전에 제대로 대응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속도 경쟁의 시대에 맞춰 필

요한 변화를 제때 제때 이뤄 내야 합니다.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 대화하고 타협해서 결론을 내고, 힘을 하나로 모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을 앞장서 실천해 온 마산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이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